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합니다】

오늘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이곳이
부처님께서 태어난 거룩한 정토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기운이 가득한
룸비니 동산에는
온갖 풀과 나무들이 꽃을 피워
향기를 널리 나누고 있습니다.
샘물과 연못은 거울처럼 맑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 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나의 태어남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마지막 삶이 되리라

내 오직 이번 삶 동안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에 있느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